사 설

"아-대한민국"…온 국민이 하나

한동안 빛을 잃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웠던 '대한민국'이라는 한 단어가 얼마 전 눈물겨운 감동과 열정의 불꽃을 피워 올리며 엄청난 힘의 이미지로 승화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다. 월드컵 축구 예선 첫 경기에서 유럽의 강호 폴란드를 이긴 그 순간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외쳤던 소리, 그것은 아직도 '아, 대 - 한민국'이라는 여운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부정과 부패, 분열과 반목은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어둡게 해 왔다. 그 어둠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릴 듯한 그 날의 함성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해 온 선수들, 최선을 다해 승패를 겨루어 당당히 이긴 페어플레이 정신에서 찾으려 한다.

지난 48년 동안 월드컵 경기에 참가, 한번의 승리도 경험 해 보지 못했던 한국 팀을 원칙대로 조련시킨 히딩크 감독에 대한 찬사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한국 사회 고질인 모든 연고를 무시, 공정하게 선수 선발을 했으며 스타플레이어 대신 팀워크를 살려냈다. 그동안 분열과 패거리주의 등 한국사회의 천박화에 절망감을 가졌을 국민들에게 축구팀의 긍정적 변모는 청신함과 함께 화합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 뿐인가. 거리마다 모여 들었던 엄청난 응원인파의 자발적 질서의식까지 합해 이번 화합 한마당은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있으며 무엇을 배워야 할 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대로 밀어 16강에 아니 8강, 4강에 오르길 기대한다.

'불사심의 기구' 만들자

환경 문제는 이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예민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과거, 개발이 약속한 보랏빛 미래가 결국은 잿빛 하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삶의 질'을 따지는 개인의 각성이 환경 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전히 개발/반개발이 대립한다. 북한산 관통도로, 천성산 경부고속철 관통, 새만금 방조제 공사 등 굵직한 현안만 해도 여럿이다.

최근 들어 불자들의 환경 의식이 경이적으로 향상되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환경연대가 1월부터 조계종 소속 사찰의 스님과 신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92%의 불자가 반환경적인 불사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과거 불교계가 사회적 문제에 둔감한 집단으로 비춰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또한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불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반환경적 불사'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명백한 '형용 모순'이다. 불사가 어찌 반환경적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불사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저없이 진리라고 믿는 까닭은 어떤 경우에도 옳기 때문이다. 거기에 불법의 위대함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었거나 사회의 요구가 비뚤어진 것이다.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혹 불사 행위에 '반' 환경적인 구석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건 반불교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수행 환경' 보장의 목소리마저도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종단 차원의 '불사심의기구'를 조속히 가동시켜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㊀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무원 업무능력 높인다

승가대에 제1회 종무행정강좌 개설
수료자 대상 '인력 풀' 시스템 구축

우수한 신규 종무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종무원들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종무행정 강좌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에서 제1회 종무행정 강좌를 개설한다. 조계종이 처음으로 마련한 종무행정 강좌는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의 종무행정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종단은 물론 각 관공서와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종무행정 마인드를 제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종무행정 강좌를 이수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발행의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종무인력 풀을 형성하여 중앙종무기관과 사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제1회 종무행정 강좌는 △종단 및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 △관공서 대응능력 향상 △사찰 실무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우선 종무행정과 관련한 강의로는 동국대 심익섭 교수의 '종무행정 개론',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의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 김응철 교수의 '세계불교의 현황' 등이 마련되며, 조계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과 김광식 박사의 '조계종 근현대사' 종회의원 현응스님의 '종헌종법'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사찰의 관공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으로는 기획실장 현고스님의 '불교관련 국가법령의 이해', 이점수 법무사의 '부동산 관리 실무 및 관련세무' 등이, 사찰의 대내외 활동을 위한 실무교육으로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의 '신도관리', 무진법장사 주지 퇴휴스님의 '법회운영 및 지원' 등의 강의가 열린다.

조계종은 스님 수료자는 본말사 주지연수와 초임주지연수교육 이수를 인정해주고, 재가자는 종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종무행정 강좌 접수마감일은 28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40명이다. 문의 02) 735~5861.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국사 주지에 종상스님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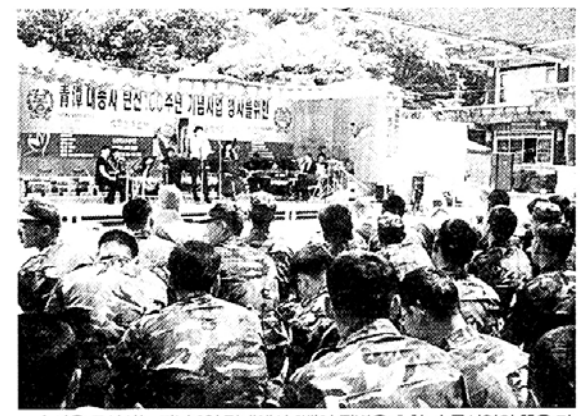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5일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에 종상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종상스님은 65년 법주사에서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73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불국사 재무국장,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중앙종회 의원,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의왕 청계사 주지, 경주 석굴암 주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불국사는 7월 19일 종상 스님 주지 진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보훈의 달…사찰서 호국영령 천도재 잇달아



◇서울 도선사는 지난 2일 경내에서 2백여 장병을 초청,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사찰들이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다.

천태종 관문사(주지 춘광)는 2일 옥불보전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하고, 서초구와 강남구내 전몰군경 및 순국선열, 서울경찰청 소속 순직 경찰관 3천여명 영가의 위패를 봉안했다.

서울 도선사도 같은날 2백여 장병을 초청, 순국선열을 기리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으며, 광주불교사암연합회도 이날 완도 장보고 축제 특설무대에서 '호국영령 전몰군경 천도 방생법회'를 열었다.

양산 통도사와 순천 송광사는 6일 현충일을 맞아 6·25와 월남전에서 순국한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리는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강원불교연합회는 8일 강원도 화천읍 붕어섬에서 방생대법회와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어 수원 용주사는 14일 효행교육원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위령제'를 열며, 국방부 호국원 광사도 호국영령 및 군복부 중 사망한 모든 영령을 추모하는 천도법회를 이달 중순경 봉행할 계획이다.

한명우·강유신 기자

태고종 특별전형 법계고시
20·21일 총무원 설법전서

지난해 내분 관계로 법계고시를 실시하지 못했던 태고종이 20~21일 양일간 제8차 특별전형 법계고시를 총무원 설법전에서 실시한다.

특별전형 법계고시는 5급 대선에서부터 4급 중덕, 3급 대덕, 2급 종덕, 1급 종사에 이르기까지 5개 법계로 나누어서, 대선, 중덕, 대덕, 종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종사는 총무원장 추천으로 실시된다.

각 법계별 응시자격은 대선은 연령 25세 이상 법랍 5세 이상으로 종단 입적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중덕은 연령 30세 이상 법랍 10세 이상 대선 품수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 대덕은 연령 35세 이상 법랍 15세 이상으로 중덕 품수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경숙 기자

"대·소승불교 포괄 신앙체계화 필요"

27일 '불교학 실사구시' 주제 전공교수 연수

'한국의 불교학은 수행 및 신행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학 전공 교수들이 스스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에 좌표를 제시하는 불교학 풍토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7~28일 1박2일간 부안 내소사에서 '불교학의 실사구시'를 주제로 제3회 '불교학 전공 교수 연수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 주제발제에 나서는 김성철 동국대(불교문화대) 교수는 "현대의 인문학적 불교학의 문제점은 '신앙으로서의 불교학'이 연구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대소승을 포괄해 불교를 신행, 또는 신앙체계로 묶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불교 신행과 유리되지 않는 불교학을 '체계불학(體系佛學, Systematic Buddhology)'이라고 명명하고, 체계불학에는 인생과 세계 전반에 대한 불교적 조망과 함께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모든 신행자를 진정한 불교인으로 만들어내는 불교신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에는 울산대 박태원 교수(철학)와 전남대 안옥선 강사가 나선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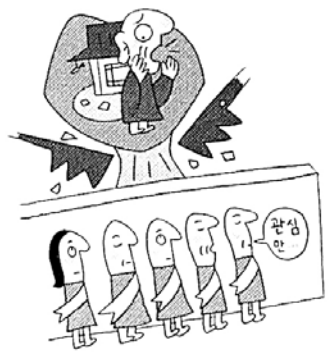
본사사령

남동우 命 취재부 기자
박원구 命 대구주재 기자

2002년 6월 10일부

'현대' 만평

김 영 민



관심과 더불어 실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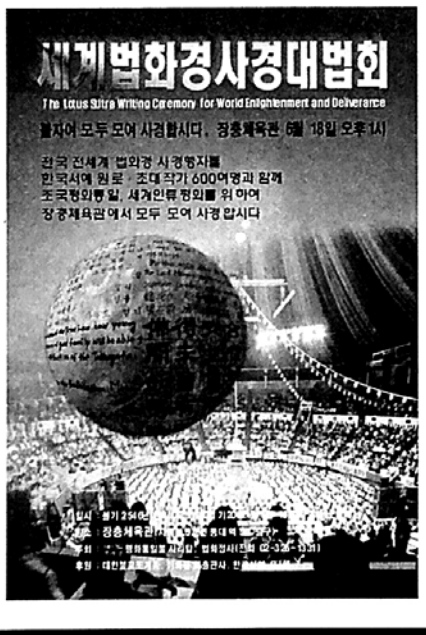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세계법화경사경대법회
The Lotus Sutra Writing Ceremony for World Enlightenment and Deliverance



불자여 모두 모여 사경합시다. 장충체육관 6월 18일 오후1시

전국 전세계 법화경 사경행자들 한국서예 원로 · 초대작가 600여명과 함께
조국평화통일, 세계인류평화를 위하여 장충체육관에서 모두 모여 사경합시다

전국 전세계 법화경 사경행자들이 불교정법중흥, 조국평화통일, 세계인류평화를 위하여 장충체육관에서 6월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세계법화경사경대법회를 연다

이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 법화정사(주지: 석도림)가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서예 5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 한국서예 원로작가와 초대작가 600여명이 정성과 대화합으로, 전지로 한장씩 사경한 불가사의한 한글서예법화경 출간과 전세계 불자들이 한쪽씩 사경한 법화경 108권 봉헌식을 함께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서예법화경은 같은 크기의 화강석으로 조각하여, 사경비림(碑林)과 탑림(塔林)을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 조성할 예정인데, 8만 대장경 불사이후 최대의 불교문화 유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열반전 8년동안 설한 경전으로 대승경전의 꽃이라 불리며, 사경본(寫經本)이 고대로부터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신라, 고려시대에는 국운이 어려울 때 왕이 구국을 위한 기도 원력으로 사경을 하였다고 한다.

법화경사경운동은 시대와 국경을 넘고,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과 사상을 벗어난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성취하기 이한 운동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백만명이 넘는 불자가 동참하고 있다.

석도림 스님은 "이 법회와 전세계 법화경 사경행자들의 기도원력을 통해, 조국과 세계를 위해 희망과 평화를 주고 온 세상이 화합속에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발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주지 석 도 림 합장

일시 : 불기 2546년(단기 4335년, 서기2002년) 6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장충체육관 (지하철 3호선 동대역 5번 출구)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 법화정사 (전화 02-326-1331)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이화문화출판사, 한국서예 5단체